

논술 - 인문

성균관대 편

오르비 배포용

코드킴

귀여운, 장 큰 왕 고양이를 위해.

## 개괄

성균관대학교는 3개의 문항이 나옵니다. 시간은 100분입니다. 자수 제한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 한 문항당 600자~700자 정도를 요구합니다. 문장의 수로 치자면 12문장 정도 작성하시는 게 가장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답안입니다.

제시문의 수도 6개로 적지 않은데다가, 2번 문항에서는 다수의 도표/그래프 분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읽어내는 데에 정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홀로 시간 배분을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시간 배분이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각 문항당 30/35/35 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성균관대 논술은 정답성이 높은 편입니다. 정량적으로 답안을 뽑아내기 쉽다는 것이죠. 허나, 속도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수적입니다.

수능 끝나고 공부하기엔 시간이 없습니다. 만일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지내셨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비슷한 유형의 논제를 내는 학교로는 경희대(사회), 한국외대가 있습니다.

## 제시문의 독해

제시문(보기)의 독해 방법부터 살펴봅시다. 성균관대의 제시문들은 대체로 주제에 대해 명료한 편입니다. 게다가 길이도 길지 않고 한 단락 수준이기 때문에 깊은 수준의 독해는 오히려 시간낭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읽되, 시간 안에 읽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 글의 종류 정하기

글의 종류를 생각해보고, 글이 작성된 방식에 따라 글을 정리한다면 명료한 독해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만날 글들은 크게 나눠보자면 비문학/문학으로 나눌 수 있고, 비문학은 설명문/주장문 으로 나눌 수 있으며, 문학은 시/소설 류 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비문학의 정리법부터 알아봅시다.

## 비문학 정리법

비문학은 작성 방식에 따라 설명문/주장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설명문은 “설명 대상 + 특징”으로 깔끔한 정리가 가능하고, 주장문의 경우에는 “주장 + 근거” 형태로 깔끔한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 중 설명문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봅시다.

설명의 방식은 인과/나열(공시적 묘사)/순서(통시적 묘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과의 경우에는 “발생한 사건과 원인(영향을 주는 요소)”관계로 글을 분석하시면 됩니다. 나열의 경우에는 나열된 대상들을 특징에 맞게 분류하시면 됩니다. 순서의 경우에는 나열에서 단순히 시간 순서를 부여하면 됩니다. 각 과정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정리하시고, 그 과정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 문학 정리법

문학은 여러 갈래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균관대 인문논술은 정답이 정해져있듯, 문학도 하나의 해석만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분류 요약 유형 논제에서 진땀을 좀 빼실 겁니다. 여러 대학들은 이런 모호성을 막기 위해 주제를 내세우고, 해당 주제로 제시문을 읽도록 유도시킵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1번 논제인 분류 요약형 논제에서 주제를 제시해줍니다.

[문제 1] <제시문 1>~<제시문 7>은 기술발전에 따른 사회변동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의 논지를 정리하시오. (30점) (2017 성대)

위의 경우에는 논제에서 ‘기술발전에 따른 사회변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논제에서 문학 갈래의 제시문이 등장했다면 해당 제시문을 ‘기술발전에 따른 사회변동’ 중심으로 읽어내려가세요. 단, 시와 소설은 각자 읽는 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시 독해법

시는 화자 중심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를 찾으세요. 단, 언제나 논제의 주제를 고려하시며 읽으셔야 합니다.

‘화자의 상황’, ‘화자의 감정’, ‘화자의 태도’.

이 세 개가 모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억지로 찾으려 하지 말고, 필요하지 않으니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 소설 독해법

소설은 ‘인물/사건/인물과 사건의 관계’ 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인물이 어떤 사건을 일으켰는지, 인물들이 그 사건으로 인해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제를 고려하여 해당 요소들을 잡아내셔야 합니다.

## 분류 요약 유형

분류 요약 유형 논제는 성균관대의 1번 문항으로 나옵니다. 여러 제시문들을 한 주제에 대해 상반되는 입장으로 분류하신 뒤, 그들을 1~2줄로 요약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도 요령은 존재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답안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실제적인 예시는 뒤에 다 수록되어 있으니 걱정마세요.

1. 분류 기준 제시
2. 분류 입장 제시
3. 해당 제시문 요약
4. 분류 입장 제시
5. 해당 제시문 요약
6. 제시문 간 관계 설정하기(3,5 과정에서)

서술 순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일 가상의 제시문 1~6이 등장하고, 이들이 1,2,3 그리고 4,5,6으로 각각 나뉜다고 가정합니다.

먼저, 논제에 나온 분류 기준을 제시해줍니다. 다음과 비슷한 문장으로.

‘제시문 1~6은 “주제”에 대해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다음, 첫번째 입장을 제시해줍니다.

‘제시문 1~6은 “주제”에 대해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제시문 1,2,3은 “주제”에 대해 ~한 입장이다.’

이제 각 제시문들을 한 두줄로 요약해줍니다.

‘제시문 1~6은 “주제”에 대해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제시문 1,2,3은 “주제”에 대해 ~한 입장이다. 제시문 1의 요약, 제시문 2의 요약, 제시문 3의 요약’

이를 한번 더 반복합니다.

제시문 1~6은 “주제”에 대해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제시문 1,2,3은 “주제”에 대해 ~한 입장이다. 제시문 1의 요약, 제시문 2의 요약, 제시문 3의 요약.

그러나 제시문 4,5,6은 “주제”에 대해 ~한 입장을 나타낸다. 제시문 4의 요약, 제시문 5의 요약, 제시문 6의 요약.’

하지만 성균관대 인문논술 가이드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약간 의아할 부분이 존재합니다. 앞부분에 있는 교수님의 말씀을 보면 제시문 간 관계 설정을 주요로 본다고 하는데, 모범 답안에는 그것이 반영되어있지 않거나, 너무나도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내야 합니다. 제시문들 간의 관계 설정은 여러 형태를 가집니다.

1. 각 측면에서의 서술
2. 원리 - 사례 - 확대 사례

주로 이 두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제시문들을 전부 독해하신 다음,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각자의 제시문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밝혀내시면 됩니다.

코드김코드김코드김코드김코드김코드김코드김코드김코드김코드김코드김코드김코드김코드김코드김코드김코드김코드김코드김  
만일, 이것이 어렵다면 하나의 입장을 하나의 책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책에서 각 제시문들  
을 하나의 목차로 보시기 바랍니다. 각 제시문들이 하나의 책에서 각자 어떤 파트를 맡게 될 것인지 제목  
을 정해보세요. 이렇게 하신다면 훨씬 쉬운 관계 설정이 가능해집니다.  
관계 설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침울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애들은 그냥  
제시문 요약 나열로 해주세요. 억지로 하는 것은 안 하느니보다 못합니다.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 해석의 단계

이제 그래프나 도표의 차이/변화의 해석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해석을 하기 전, 도표의 분석 결과를 글로 옮기시는데, 수치를 그대로 인용한다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냥 수치를 옮기지 말고, 수치들끼리 뺄셈, 덧셈을 통해 그들의 차이/변화를 더욱 명확히 해주신다면 당연히 더 좋을 겁니다.

해석의 단계에서는 각 제시문들과의 구체화를 통해 각 사건(변화나 차이)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를 추론하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제시문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이 되는 모든 제시문들을 사용하시되, 역지로 연결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시문이 한 자료와 연결이 안 된다면 버리고 다른 자료에 활용을 해봅시다.

### 견해 제시 유형

주로 3번 문항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크게 2가지 양상을 가집니다. 기출 문제의 논제를 살펴봅시다.

[문제 3] 한 국가가 비만을 포함하여 건강관련 문제를 일으키는 식품(예: 백설탕, 트랜스지방, 착색제, 향신료 함유 식품)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하려고 한다. 이 정책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견해 중 하나를 [문제 1]의 한 입장에 근거하여 논술하시오. (30점)  
(2018 성균관대 인문 1교시)

[문제 3] 한 국가의 정부가 ‘국가 장학생 선발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소수의 뛰어난 인재들을 적극 육성하는 데 재정적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 견해를 [문제 1]의 각 입장에 근거하여 모두 논술하시오. (35점)  
(2018 성균관대 인문 2교시)

[문제 3] [문제 1]의 각 입장과 연관지어 <보기>에 있는 인터넷 방송 규제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견해를 모두 논술하시오. (35점)  
(2018 성균관대 인문 3교시)

이들의 차이를 이야기하자면 1교시의 논제는 둘 중 하나의 입장만 서술하는 것이고, 나머지 두 문항은 두 입장을 모두 서술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풀어내는 방법론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 두 가지 입장을 모두 이야기하는 유형

1. 견해 제시 대상 정리
2. 입장 선택 - 찬반 연결
3. 찬성
4. 입장 제시문 활용하여 근거 제시
5. 반대
6. 입장 제시문 활용하여 근거 제시

먼저, 어떤 유형이든 문제가 제시하는 문제 상황(견해 제시 대상)을 정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에 제시한 ‘2018 성균관대 인문 2교시’ 논제를 활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장학생 선발 제도를 도입하면 뛰어난 인재들이 장학금을 받고 교육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재정적 지원이 닿은 만큼, 다른 학생들에게는 재정적 지원이 닿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찬반 연결을 각 입장별로 하시면 됩니다. 이 논제는 사회정의에 대해 2가지 관점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공리의 원리’이고, 하나는 ‘공정한 기회의 평등’, ‘차등의 원칙’입니다. 전자에서는 견해 제시 대상을 찬성할 것이고, 후자의 입장에서는 견해 제시 대상을 반대할 것입니다.

이제 찬성한다는 입장을 추가해줍니다.

‘국가 장학생 선발 제도를 도입하면 뛰어난 인재들이 장학금을 받고 교육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재정적 지원이 닿은 만큼, 다른 학생들에게는 재정적 지원이 닿지 않게 될 것이다.

공리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제시문 1,3,4는 해당 정책에 대해 찬성할 것이다.’

그 다음 근거를 제시합니다. 여기에서는 해당 입장에 속하는 제시문을 구체화 시켜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 장학생 선발 제도를 도입하면 뛰어난 인재들이 장학금을 받고 교육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재정적 지원이 닿은 만큼, 다른 학생들에게는 재정적 지원이 닿지 않게 될 것이다.

공리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제시문 1,3,4는 해당 정책에 대해 찬성할 것이다. 제시문 1을 사용한 근거 제시, 제시문 3을 사용한 근거 제시, 제시문 4를 사용한 근거 제시.’

나머지 입장도 해줍니다.

‘국가 장학생 선발 제도를 도입하면 뛰어난 인재들이 장학금을 받고 교육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재정적 지원이 닿은 만큼, 다른 학생들에게는 재정적 지원이 닿지 않게 될 것이다.

공리의 원리를 주장하는 제시문 1,3,4는 해당 정책에 대해 찬성할 것이다. 제시문 1을 사용한 근거 제시, 제시문 3을 사용한 근거 제시, 제시문 4를 사용한 근거 제시.

그러나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는 제시문 2,5,6은 해당 정책에 대해 반대할 것이다. 제시문 2를 사용한 근거 제시, 제시문 3을 사용한 근거 제시, 제시문 4를 사용한 근거 제시.’

이런 식으로 답안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 한 입장을 선택해야 하는 유형

1. 견해 제시 대상 정리
2. 입장 선택 - 찬반 연결
3. 찬성 혹은 반대
4. 입장 제시문 활용하여 근거 제시
5. 반론 / 재반론
6. 사례 제시

나머지 작성에서는 위의 유형과 같습니다만, 5에서 차이가 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입장에서 견해제시 대상을 살펴보았을 때, 어떤 반론이 가능할지 생각해보신 다음에 그를 재반론하는 형식으로 나의 입장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혹은, 실제 사례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반론 - 재반론을 한다면,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반론의 근거 타당성을 공격하는 방법과 반론을 일부 수용하여 보완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을 사용하시든, 논리적인 답안을 구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례를 제시한다면 실제 사례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시의성이 높을수록, 대중적일수록 좋습니다.

예시답안 - 2018 성균관대 인문논술 2교시  
문항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6>은 사회정의를 바라보는 상이한 관점을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30점)

<제시문 1>

어떤 사람에게 엄청나게 많은 거액의 돈을 맡긴 채 병원에서 죽어가는 한 노인이 있었다. 그의 돈을 맡아 온 대리인은 그 부자가 맘 편히 죽을 수 있도록 부자의 재산을 그의 부유한 친척에게 유산으로 잘 넘겨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렇지만 이 약속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이 대리인은 부자가 죽자 그 돈을 부유한 친척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인근의 병원에 기탁했다. 그 부자의 친척은 그 돈의 존재조차 모르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거나 아쉬워할 일이 없었고, 병원은 그 돈으로 환자들을 무상으로 치료해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베풀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대리인의 거짓말 덕분에 누구도 고통당하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었다. 대리인의 이런 행위야말로 칭찬받을 만하지 아니한가!

<제시문 2>

현재의 소득과 부의 분배는 일정 기간 동안 천부적 자산( 타고난 재능 등)이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적용되면서 누적된 결과이므로 불평등하다. 따라서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위는 단지 형식적으로만 개방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획득할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것을 공정한 기회의 평등이라고 한다. 즉, 유사한 능력과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유사한 기회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차등의 원칙이란 사회적 불평등, 예를 들면,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것이다. 천부적으로 더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사회의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여건을 개선해준다는 조건에서만 그들의 행운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공정으로서의 정의이다.

<제시문 3>

전체 사회의 이익이란 무엇인가? 그 이익이란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개인이 얻는 이익의 총합이다. 그렇다면 여러 개인이 얻는 이익의 총합이란 무엇인가? 어떤 일이 개인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그것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쾌락(행복)의 합계를 증가시키거나 고통의 합계를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한다는 것은 그것이 사회 구성원의 쾌락의 합계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가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그것을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큰 경우, 이는 공리(功利)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행위에 대한 개인의 승인이나 부인이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다시 말해 공리의 법칙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그 개인은 공리의 원리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공리의 원리에 따르는 정부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목표로 정책과 법을 입안하고 집행한다.



제시문 독해

<제시문 1>

부자가 사망하면서 많은 재산을 남김, 그러나 대리인의 거짓말로 인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음.

<제시문 2>

현대 사회의 소득과 부의 분배는 불평등. 그저 운 때문에 벌어진 것이므로, 공정한 기회의 평등과 차등의 원칙을 이용하여 사회정의 이룩해야 함.

<제시문 3>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이루는 것이 사회정의. 이것이 공리의 원리.

<제시문 4>

A가 최상의 정책, B가 최악의 정책.  
A는 소득 구조가 굉장히 불평등하지만 총합이 크고, B의 소득구조는 상대적으로 평등하지만 총합이 작다. 즉, 총합이 큰 것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제시문 5>

부유한 국가들이 부유해진 이유는 그들이 만든 관행 때문. 부유한 국가들이 가난한 국가들에게 국민 총소득의 1%씩 준다면 빈곤이 해결될 수 있음.

<제시문 6>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이익 때문에 차별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하기 때문.

[문제 1] 해설

제시문 1,3,4는 공리의 원리, 제시문 2,5,6은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해 말함. (입장 나누기)  
제시문 3은 원리에 대한 제시문, 4는 그에 대한 사례, 1은 분배가 비도덕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된다는 실제적인 사례(제시문들의 관계 설정)  
제시문 2는 원리, 제시문 5는 사례, 제시문 6은 그것이 사회적 의미로 확대된 사례(제시문들 간의 관계 설정)

[문제 1] 모범 답안

제시문 1~6은 사회정의에 대해 상반된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제시문 1,3,4는 사회정의에 대해 공리의 원리를 주장한다. 제시문 3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루는 것이 사회정의라고 본다. 어떤 정책이 사회 전체의 쾌락의 합을 증가시키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제시문 4에 드러나 있다. A정책을 사용한 도시는 상층과 하층의 격차가 심하여 가장 불평등한 소득 구조를 보여주고 있지만, B정책을 사용한 도시는 상층과 하층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어 가장 평등한 소득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A정책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아, 공리의 원리를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시문 1은 이러한 공리의 원리가 거짓말과 같은 비도덕적인 행위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얻는 이익의 총합을 증가시킨다면 칭찬받을만한 행위라고 말한다. 부자의 재산은 친척에게 전해지지 못했지만, 그 대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반면, 제시문 2,5,6은 사회 정의에 대해 공정함을 주장한다. 제시문 2에서 불공정한 부의 분배와 소득 구조는 그저 운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한 기회의 평등과 차등의 원칙을 이야기한다. 제시문 5는 이것들이 국제관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말하는 사례이다. 부유한 국가들이 부유해진 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구조 때문이고, 빈곤한 국가들을 위해 국민 총소득의 1%를 나누어야 한다고 말한다. 제시문 6은 경제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이러한 정의들이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들이 다수의 편익을 위해 자유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표/그래프 분석]

<자료 1>은 공시적 그래프, 차이에 주목.

국가 A의 그래프는 계층에서 시장소득, 공적이전지출, 가처분소득의 양상이 똑같이 나타남. 그러나 국가 B는 A국과 시장소득은 같지만 상위계층의 공적이전지출이 눈에 띄게 높으며, 하위계층의 공적이전지출이 낮음. 결과적으로 B국의 가처분소득이 A국에 비해 평등한 양상을 가짐.

<자료 2>는 노년층, 중장년층, 청년층마다 취업률 증감, 평균 임금, 예산 배정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음. A국과 B국의 대상별 취업률 증감의 정도와, 평균 임금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예산 배정에서 차이가 있음. A국은 청년층에 예산 배정이 높으며, 노년층에는 가장 적은 예산을 배정함. B국은 노년층, 중장년층, 청년층 모두 공평하게 예산을 배정했음. 오히려 노년층이 가장 높게 나타남.

<자료 1>의 B국에서 공적 이전 지출은 제시문 2의 차등의 원칙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음. 그 결과, 가처분소득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 반면, A국은 공적이전지출에서 그런 행보를 찾을 수 없음. <자료 2>의 A국이 청년층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은 취업률 증감의 정도가 높아 인구 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많은 평균 임금을 받기 때문, 즉 이는 공리의 원리를 통해서 사회 생산의 총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반면, B국은 모든 대상에게 똑같은 투자를 하는데 이는 공정한 기회의 평등을 적용시킨 결과로 볼 수 있음.

[문제 2] 모범 답안

<자료 1>에서 A국과 B국의 시장소득은 같지만, 공적이전지출에서 차이가 있다. B국은 A국에 비해 상위계층의 공적이전지출이 높고, 하위계층의 공적이전지출은 낮다. 그 결과, B국의 가처분소득은 A국의 가처분소득보다 평등한 양상을 가진다.

<자료 2>에서 A국과 B국의 각 대상별로 취업률 증감, 평균 임금은 유사하지만 예산 배정에서 차이를 보인다. A국은 청년층에게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노년층에는 가장 적은 예산을 배정하였다. 그러나 B국의 경우에는 모든 대상에게 비슷한 정도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이러한 양상으로 보아, A국은 사회정의에 대해 공리의 원리를 주장하는 제시문 1, 3, 4의 입장을 지지하고, B국은 사회정의에 대해 공정한 기회의 평등과 차등의 원칙을 주장하는 제시문 2, 5, 6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자료 1>에서 A국이 공적이전지출에서 B국과 같이 큰 차이를 만들지 않은 것은 가처분소득의 총합을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료 2>에서 청년층에게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노년층에는 가장 적은 예산을 배정한 것은 청년층이 가장 취업률 증감의 정도가 높고, 평균 임금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사회 소득의 총합을 증가시키기 위해 선택한 정책이라 볼 수 있다. 반면에 <자료 1>에서 B국은 차등의 원칙을 고려하여 각 계층마다 공적이전지출의 비용을 변형시켰으며, 이것이 소득의 총합의 증가로 이어지진 못하더라도 가처분소득의 상대적 평등을 가져와서 불평등을 해소시켰다. <자료 2>에서의 B국이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에 유사한 정도의 예산을 배분한 것도, 노년층에게도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는 공정한 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진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런 정책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한 것이다.

[문제 3] 한 국가의 정부가 ‘국가 장학생 선발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소수의 뛰어난 인재들을 적극 육성하는데 재정적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 견해를 [문제 1]의 각 입장에 근거하여 모두 논술하시오. (35점)

### 견해 제시 상황 분석

국가 장학생 선발 제도를 도입하면 뛰어난 인재들이 장학금을 받고 교육 혜택을 받게 될 것. 그러나 그들에게 재정적 지원이 닿은 만큼, 다른 학생들에게는 재정적 지원이 닿지 않게 될 것.

제시문의 각 입장과 연결해보면, 뛰어난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줄 경우 사회 총합을 생각했을 때는 행복을 증가시킬 수 있음, 그러나 천부적인 재능의 격차가 만들어내는 불평등이 생김. 또한 그 장학금이 다른 학생에게 갈 수 없다는 걸 고려하면 공정한 기회의 평등에 어긋남.

### [문제 3] 모범 답안

국가 장학생 선발 제도를 도입하면 뛰어난 인재들이 장학금을 받고 교육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재정적 지원이 닿은 만큼, 다른 학생들에게는 재정적 지원이 닿지 않게 될 것이다.

공리의 원리를 주장하는 제시문 1,3,4의 입장에서는 해당 정책에 대해 찬성할 것이다. 제시문 3의 공리의 원리에 따르면 뛰어난 소수의 학생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 발전의 정도가 다수의 학생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 발전의 정도보다 크다면 이러한 정책은 사회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사회 발전은 분명히 사회 전체에 큰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시문 4와 같이, 불평등한 구조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 전체의 이득의 총합이 더 크다면 마찬가지로 정당하게 된다.

그러나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는 제시문 2, 5, 6의 입장에서는 해당 정책에 대해 반대할 것이다. 제시문 2에서 말하였듯이, 소수의 뛰어난 인재들이 천부적인 재능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그저 운에 따른 분배이니 불공정하다. 또한 이 정책이 공정한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뛰어난 자지 않은 다수의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뛰어난 학생들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높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차라리 차등의 원칙에 따라서 소득계층을 고려한 장학금 분배가 훨씬 사회정의에 부합한다. 모든 학생들은 교육을 받을 자유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